



# 엔터테인먼트 시대 캠페인 성공, '재미'에 달려

'달리는 서재, 책임는 시민' 캠페인 전개  
독서문화 조성, '우리 모두의 의무'

독서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각종 시민 단체와 서울시 등 민·관이 다양한 형태의 책임기 권장 캠페인이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엔 또 한 곳의 문화 주체가 독서문화 발전에 힘을 보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나눔과 순환'이라는 생활운동과 이를 통한 수익으로 자선과 공익사업을 해온 아름다운가게가 독서문화 운동에 나선 것이다. 현재 책과 관련해서는 '즐거운 책나눔 공간'을 운영하며 각 가정에 꽂혀있는 헌 책을 다시 유통시키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재단 내 간사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경영을 펼치는 한편, 지하철공사와 함께 시민들이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이강백(44) 사무처장은 헌 물건 1,000개를 순환시키는 것보다 헌책 10개에 생명을 불어넣는게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 사무처장을 만나 아름다운가게의 독서캠페인에 대해 들어보았다.

### 책은 '원칙' 일깨우는 가장 훌륭한 대화 상대

아름다운가게가 독서운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책이야말로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강백 사무처장의 개인적인 경험도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했다. 82학번인 이 사무처장은 1985년 미문화원점거 사건으로 구속돼 2년간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피 끓는 젊은이였던 이 사무처장에게 수형생활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소리 지르고 철창을 발로 차고 교도소측과의 싸움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발길질에 열릴 철창이 아니었다. 결국 이 사무처장은 책을 집어 들었다.

"연세대 물리학과 박홍이 교수가 구대에 있을 때 이야깁니다. 구대라는 '감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박 교수는 탈영을 계획했는데, 그의 탈영 계획을 막은 건 다름 아닌 책이었습니다. 많은 대화 상대가 있지만 그 중 원칙을 알려주는 대화 상대는 바로 책입니다. 당시 그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학자로서 길을 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무처장 역시 다르지 않다. 책을 읽기 시작한 이 사무처장은 자신의 '무지'를 비로소 깨달았고 감옥이 아니라 책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호흡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운동하고 술 마시느라 책을 읽지 못했다는 게 이 사무처장의 솔직한 고백이다.

### '모든 간사는 독서의 의무를 가진다'

사실 '캠페인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안되는 캠페인 중

하나가 바로 독서캠페인이다. 이 사무처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서캠페인에 '재미'라는 요소를 덧붙이고, '남는 시간' 독서가 아니라 '생활 속' 독서를 강조할 계획이다. 실제 아름다운가게는 '화장실에 책꽂이를!' '차 한 잔에 독서를!' '이 책은 당신을 위하여!' '달리는 철마에서 당신만의 세상이 열린다!' '지식의 수면제, 3페이지!' '혼자 알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벼리책방' 등의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실행 또는 준비하고 있다. '책을 읽자'는 구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을 보다 가까이 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이름들이다.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시대입니다. 캠페인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재미있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거죠."

아름다운가게의 독서캠페인은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나뉜다. 우선 대내적으로 조직의 큰 사명을 인재육성에 두고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상임간사 교육을 위해 독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종의 독서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가게에서는 '공육'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를 통해 '기본을 갖춘 인재' '열정을 가진 인재' '풍부한 문화적 소양과 지식을 가진 인재' '상상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특히 풍부한 문화적 소양과 지식을 가진 인재를 만들기 위해 자기계발에 투자할 것을 주문한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영화와 음악회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간사들은 독서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교육은 비용뿐만 아니라 공간, 시간을 배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교육에 소홀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독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게 추천도서제입니다. 필독서를 정하고 읽게 하는 것인데 이번달에는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 모든 시민과 함께 '책읽는 시민' 캠페인 전개

물론 서평을 쓰게 하고 우수 서평자에 대한 포상도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년에 두 명 정도는 제주도 여행을 보내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동기 부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의 '코치' 때문이다. 이 외에도 '화장실에 책꽂이를!' 등 독서 캠페인은 우선 자체 간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대외적으로는 모든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아이디어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하철공사와 함께 '달리는 서재, 책읽는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출퇴근시간 중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평균 왕복 1시간이라고 했을 때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한 달에 20시간이 된다. 지하철 하루 이용객은 600만 명으로 전국민이 지하철에서 소비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하다. 아름다운가게의 의도는 이 시간을 가능하면 책을 읽는 시간으로 유도해보자는 것이다. 지하철공사와는 이미 합의를 마쳤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처음 독서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땐 왜 아름다운가게가 독서캠페인을 해야 하느냐는 등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저희의 결론은 지식 역시 나누어지고 순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독서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을 때, 독서운동을 목적으로 한 특정 단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독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

취재\_신동섭 기자 | 사진\_박신우\_기자

### 이강백 사무처장의 독서 교육법

## 부모라면 자녀에게 독서습관부터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사무처장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독서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독서습관이야말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가능하다면 결혼서약서에 이 조항을 넣고, 부모자격시험이 있다면 아이에게 독서습관을 교육시킬 수 있는지부터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생각은 '작은 실험'을 통해 확신으로 굳어졌다. 바로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 '석재'에게 아무런 과외도 시키지 않고 책만 읽게 한 것이다.

"작년엔 모든 가족이 볼 수 있는 문에 '책벌레 석재가 읽는 책'이라는 표로 만들고 아이가 읽은 책을 써넣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 삼사 백 권 정도 되더군요. 이러한 성취가 아이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맘껏 과외 시킬 만큼 넉넉한 집안 형편도 아니었고요. (웃음)"

석재의 학교성적은 전교에서 손에 꼽힐 정도다. 물론 고민도 있다.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에게 이전처럼 책만 읽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 사무처장도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 게 사실이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교우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무처장은 이미 몸에 밴 독서습관이 아이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신동섭 기자